

남구 도시첨단산단에 노화연구 시설 들어서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광주센터 준공식 지역 기업과 기술협력...전주센터 2026년 통합

국내 유일 고령동물 생육시설을 갖춘 최고 수준의 노화 연구시설이 광주 남구에 들어섰다.

광주시는 14일 오후 2시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압촌동)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 광주센터 준공식을 연다고 13일 밝혔다.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연기관인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노화연구 수행을 위해 지난 2016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시설 건립을 추진해왔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전남대에서 운영했던 광주센터를 이 곳으로 확장, 이전한 것이다.

광주센터는 국비 110억원 등 총 190억원을 들여 부지 1만6532㎡, 연면적 3730㎡에 3층 규모로 건립됐다.

광주센터는 국내 유일의 고령동물 생육

보급시설을 바탕으로 노화와 관련한 기초 및 원천 기술 개발에 집중하게 된다. 예컨대 18개월령 된 실험용 쥐는 사람으로 치면 70~80대인데, 고령동물 생육 보급시설에서는 청정시설과 첨단 기술을 이용해 30개월령 이상으로 키워내는 기술을 갖고 있다. 고령동물 생육 관련 기술과 연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간 노화를 억제하거나 수명 연장 관련 원천 기술 확보에 도전하는 것이다.

광주시 미래산업정책과 박선희 과학기술담당관은 "한국기초과학연구원 광주센터에서는 초고령사회 대비 건강노화 연구 및 산업지원, 노화연구 원천기술 개발, 퇴행성질환 치료 연구, 질환 동물 연구 등 노화연구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 기업과 협력해 노화관련 의약품, 화장품, 의료가기, 바이오기술 개발에도 나선다"



광주시 남구 압촌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들어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광주센터는 국내 유일의 고령동물 생육시설을 갖추고 노화 억제, 수명 연장 연구 개발을 하게 된다.

고 설명했다.

준공식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윤희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실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신형식 원장, 장병완 국회의원, 김경진 국회의원, 전남대학교 정병석 총장 등을 비롯한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한다.

광주시는 이번 시설 건립에 따라 지역경

제 파급효과 430억원과 고용창출 224명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시는 나노 기술(극미세 가공 과학기술) 연구에 주력하는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전주센터를 오는 2026년까지 광주센터로 통합하는 사업이 내년도 본원 사업계획에 포함돼 오는 2026년까지 추진 된다고 밝혔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중소기업 경쟁력 키우자’

광주시, 올 300억원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광주시는 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 300억원 규모의 구조고도화자금을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구조고도화자금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지원 한도는 시설자금 10억원(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3억원(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지원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광주 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공장등록증 사본,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중소기업 구조고도화자금은 1994년부터 중소기업 관련 기업에 매년 300여억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며 지역 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쓰이고 있다.

이경 광주시 기업육성과장은 "올해도 경영안정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도 기업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다양한 기업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설 명절 전남 우수농식품 애용해 주세요

전남도·광주상의 캠페인 농식품 홍보관 설치·판매

전남도와 광주상공회의소는 설을 앞두고 전남 우수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한 공동 캠페인을 펼친다.

설과 추석은 농식품 소비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기업이 전남 농식품 소비 촉진에 적극 동참하길 바라는 차원에서 지난해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뜻을 모았다.

전남도와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21일까지 광주상공회의소 1층에서 '전남 농식품 홍보관'을 설치하고, 회원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농식품을 판매한다.

또 우수 농식품 홍보책자를 상공회의소 회원사에 배포하고, 누리집을 통해

온·오프라인 구매 활성화를 독려한다.

농특산물 홍보책자에는 여수 갯김치, 순천 복숭아 가공식품, 나주배, 광양 대봉꽃감, 담양 딱갈비, 곡성 사과, 구례 산수유, 고흥 석류·유자차, 보성 녹차, 화순 더덕, 장흥 표고버섯, 강진 쌀귀리, 해남 한눈에반한살, 영암 금정 토하젓 등 각종 품평회에서 입상했거나 도지사 추천하는 200여 품목이 담겨 있다.

한편 전남도는 설맞이 온·오프라인 농산물 직거래 행사를 하고 있다. 남도장터(jnmall.kr) 온라인 쇼핑몰에서 23일까지 농특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 판매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광복점에서도 설성수품 농특산물을 직거래 장터를 운영한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국회를 바꾸자 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좋은 후보 선정과 당선을 위한 '국회를 바꾸자 2020 총선 시민모임'이 13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데이터 3법’ 개정...광주 AI산업 탄력 불나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길 마련

광주시는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광주 인공지능(AI)산업 육성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4차 산업혁명에 필수적인 데이터의 개방·유통이 확대되고 데이터 간 융합과 활용을 통한 인공지능 산업 기반이 되는 데

이터 경제 활성화 길이 마련됐다는 것이다.

개정된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발전을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고 있어,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사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 연구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기업이 상업적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관련 내용을 모두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의 핵심시설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도 양질의 산업융합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사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이다.

순경중 광주시 인공지능산업육성장은 "광주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을 담은 광주형 인공지능 비즈니스 모델을 성공시키기 위한 법적태두리가 마련됐다"며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지자체 주도의 노사상생 모델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성공적으로 착수한데 이어 세계를 상대로 시작된 '지능형 경제전쟁'에서도 반드시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김기태 전남도의원 명절 앞두고 전통시장 애용 당부

지역화폐 활성화 등 강조

전남도의회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전통시장을 애용을 당부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다.

13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김기태(순천1·민주·사천)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통시장 상인들이 웃어야 전남 경제가 살아난다"면서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처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한 지역화폐 활성화와 명절 전통시장 장보기 등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시군별 전통시장 실정을 감안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을 주문했다. 고질적인 주차장 문제를 개선할 대



책을 마련하고 지역 자금 역외 유출을 막고 전통시장 경제에 활기를 줄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의 불법 유통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형마트에 밀려 전통시장이 점차 위축되고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의 가까운 이웃인 시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작은 소비 실천으로부터 시작되므로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자주 이용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